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김선호(인천가톨릭대학교)

북한의 당군관계는 해방 직후부터 당단체의 조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에 보안무력(후에 내무국군대)과 군사학교에 당단체를 설치하였다. 이와 달리 노동당은 1946년 10월에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노동당이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해방 직후에 통일전선의 구축을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당은 이 같은 혁명노선에 따라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군대에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당과 군대는 1946년 8월에 각 정치세력이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해 있는 정치연합체제였다. 김일성은 당과 정권기관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은 1947년부터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이 분점하였다. 인민군은 국가건설기의 정치연합체제에 따라 통일전선의 군대로 조직되었고, 당과 군대는 이원화되었다.

주제어: 조선인민군, 평양학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 북조선노동당

1. 머리말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과 군대의 관계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부터 자신들의 체제운영방식을 ‘선군정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질에는 당군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이다.¹⁾ 선군사상은 선군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상으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의미한다.²⁾ 선군정치의 성격에 관한 주요논점은 선군정치로 인해 당군관계가 변화했는가 여부이다. 이는 당이 군대를 지배한다는 원칙에서 변화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³⁾

당군관계란 사회주의국가 안에서 당과 군대가 맺고 있는 구조적 관계를 의미한다. 당군관계는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의 권력구조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심적인 논의주제 중 하나다. 당군관계를 해석하는 시각은 양자를 적대적 구조의 관계로 파악하는 입장과 양자를 갈등보다 조화의 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당군관계에는 각 국가의 발전과정과 권력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국가별로 당군관계가 다른 이유를 분석한 방법론으로는 권력장악의 과정과 파벌투쟁의 정도 등에 주목하는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의 컨텐

1) 김철우, 『김일성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7쪽.

2)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1년 12월 21일.

3) 최대석·윤성식, “북한의 선군정치와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북한연구학회보』, 9권 1호(2005), 58~59쪽.

전시 접근법(Contingency approach), 혁명적 발전의 속성과 소련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아델만(Jonathan Adelman)의 역사적 발전모델(historical developmental model) 등이 주목된다.⁴⁾ 당이 군대를 통제하는 방식의 국가별 차이점도 연합(coalitional), 공생(symbiotic), 혼합(fused)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⁵⁾

북한체제를 분석할 때 당군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처럼 당군관계가 사회주의국가의 과거·현재·미래의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주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과정에서 건당과 건군의 역사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북한 통치권력의 핵심은 군대였고, 권력구조의 핵심은 당군관계였다. 특히 선군정치에 관한 세간의 관심은 당보다 군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에 입각해 ‘군에 의한 쿠데타’라는 급변사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⁶⁾

북한의 당군관계는 이처럼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원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되었으며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⁷⁾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한국전쟁 이전 북한

4)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군사』(서울: 경인문화사, 2006), 32~36쪽.

5)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서울: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36~39쪽.

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권 3호(2012), 146~147쪽.

7) 당군관계에 관한 주요연구는 다음을 참조 바람.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3);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창군기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3호(1998), 267~269쪽;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에서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26호(1996), 159~193쪽;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17~52쪽; 서동만, 『북조선사

의 당과 군대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개로 조직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군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논쟁의 지점은 인민군이 ‘당의 군대’였는가, ‘통일전선의 군대’였는가 하는 점이다.⁸⁾

일부 선행연구는 당시 인민군이 노동당의 군대가 아니라 통일전선과 인민의 군대였으며, 당과 군대가 분리되어 당·인민위원회·정부의 밖에서 자율적 존재로 창설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김일성(金日成)이 자과세력을 통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당이 군대를 통제하기에는 군대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⁹⁾ 일부 선행연구는 당시 당군관계가 외형적으로 당에 대한 군의 우위였으며, 당과 군대는 상호 분리된 ‘연합적’ 관계였다고 분석했다.¹⁰⁾ 다른 선행연구는 김일성이 군대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당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과 군대를 이원화시켰다고 분석했다.¹¹⁾ 또 다른 선행연구는 인민군이 당의 군대이자 통일전선의 군대였으며, 본질적으로는 김일성의 군대였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김일성이 초기 국

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250~279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7~84쪽;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24~57쪽; 백학순, “당·정·군 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위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32~43쪽;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146~202쪽;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2017), 99~137쪽.

8) 당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군대에 당단체가 조직되고 당의 유일적 통솔권이 보장되는 군대이다. 이에 비해 통일전선의 군대는 군대에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고 여러 정치세력의 통일적 통솔권이 보장되는 군대이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당시 통일전선의 군대를 뜻하는 말로 “인민의 군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271~279쪽;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43~52쪽.

10)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49~53쪽.

11)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37~42쪽.

가건설시기부터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결과 당과 군이 일원화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¹²⁾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인민군 창설 이전에 군대에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김일성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노동당이 군대에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와, 당과 군대의 일원화·이원화 여부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1948년에 군대가 출현한 이후 당군관계만 주목하였으며, 창군 이전의 당군관계는 주목하지 못했다. 1945년 8월부터 1947년까지 군대¹³⁾의 당군관계는 당군관계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는 인민군 창설 이전에 경찰과 군대의 당군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히지 못했다. 해방 직후부터 모든 무력에 당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노선에 입각해 보안부서·군사학교·독립부대·군대별로 당단체의 조직 여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당군관계는 해방 직후 당단체의 조직 여부와 각 무력별 사례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해명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당군관계가 출현하는 과정과, 국가수립 이전까지 나타난 당군관계의 특징을 해명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정치세력이 당과 군대에서 형성하고 있던 세력관계를 중심으로 당군관계를 분석했다. 이 글은 세력관계가 아니라 해방

12)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175~183쪽.

13) 이 글에서 군대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정식으로 창설되기 전에 정권기관과 군사지휘기관이 관할한 무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군대는 정권기관이 관할하는 보안무력으로 창설되었다가 1946년 8월부터 보안무력(후에 내무국군대)과 군대로 분화되었다. 북한의 군대는 정권기관의 무력으로 출발해서 분화했기 때문에 당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민군과 정권기관의 군대를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직후부터 북한정치세력이 추구한 혁명론과 통일전선을 중심으로 당군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해방 직후 보안무력에서 나타난 당군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1946년 8월 군대와 경찰이 분리된 이후에 군대에서 나타난 당군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해명한 당군 관계를 토대로 군대의 성격과, 당과 군대의 일원화·이원화 문제를 해명할 것이다.

이 글은 당군관계의 역사적 사실과 선행연구의 논쟁을 해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미군 노획문서(U.S. NARA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in the Korean War)를 새로 발굴해 활용하였다. 당군관계에 대한 북조선로동당의 정책은 1950년에 생산된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을 통해 확인하였고, 당군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는 인민군 장교들의 『자서전』과 『리력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2. 보안무력과 내무국군대의 당군관계

북한지역에서 무력이 처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이다. 해방이 되자 북한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단체가 결성되었다. 각 무장단체는 소련군 경무사령부와 협조해 치안유지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무장단체는 자파의 세력확장과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폭력과 테러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자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10월 12일 모든 무장단체에 해산과 무장해제를 지시했고, 경무사령부와 협의 아래 도인민위원회 산하에 보안대를 새로 조직하라고 명령했다. 각 지역에 보안대가 신설되자, 소련군과 북한정치세력은 보안무력을 총괄하기 위해

북조선행정10국 중 하나로 북조선보안국(北朝鮮保安局)을 설립했다.¹⁴⁾

북한의 보안무력 중에서 전체 지역에 조직된 무력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 하나인 보안부와 보안서다. 각 도에는 보안부가 조직되었고, 시·군에는 보안서가 설치되었으며,¹⁵⁾ 보안서 예하에는 보안분서가 설치되었다.¹⁶⁾ 지방인민위원회 보안부서 아래에는 별도의 보안무력이 조직되었다. 도 보안부 산하에는 “부(部)경비대”가 조직되었고, 시·군 보안서 산하에는 “서(署)경비대”가 조직되었다.¹⁷⁾ 보안부와 보안서는 각 지방에 설치된 소련군 경무사령부를 도와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한편, 북한지역에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소속된 보안부서나 보안무력과 달리 특별한 경비임무를 맡은 보안무력이 조직되었다. 먼저,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의 철도를 경비하기 위해 1945년 말에 4개 대대로 편성된 철도경비대를 창설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1월 11일 철도경비대를 철도보안대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북한정치세력은 1945년 12월에 중국·북한의 경계지역을 경비하기 위해 조·만국경경비대를 창설했고, 1946년 중반에 38선을 경비하기 위해 38경비보안대를 창설했다. 또한,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후반에 해안지역을 경비하기 위해 대대 규모로 동해수상보안대(원산)와 서해수상보안대(진남포)를 조직했고, 1946년 6월부터 보안대원을 훈련시키기 위해 3개 지역에 보안간부

14)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86호(2012), 296~297쪽.

15)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7.3), 『北韓關係史料集』, 9권(과전: 국사편찬위원회, 1990), 230쪽. 『북한관계사료집』은 이하 『사료집』으로 약칭하고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16) “保安機構秘密文書取扱規定”(1947.2.1), 『사료집』, 9권, 64쪽.

17)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7.3), 『사료집』, 9권, 237쪽.

훈련소를 설치했다.¹⁸⁾ 북한정치세력은 보안무력을 창설하는 것과 동시에 정규군의 기간이 될 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군관 양성기관으로 1946년 1월 3일 평양학원(平壤學院)을 창설하였고, 1946년 7월 8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를 창설하였다.¹⁹⁾

해방 직후 창설된 보안무력은 1946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군대와 경찰로 분리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8월 15일에 평양시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 이하 대대부)를 창설했다. 대대부는 보안간부훈련소, 평양학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관할했다.²⁰⁾ 보안간부훈련소와 군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보안무력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이 관할했다. 즉 보안국은 지방인민위원회에 설치된 경비대와, 특별경비부대인 철도보안대·조만국경경비대·38경비보안대·수상보안대를 관할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당군관계는 일차적으로 군대의 당단체 설치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북한지역에서 당군관계가 처음 등장한 기관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이 관할하는 보안무력이었다. 첫째,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조직된 보안부와 보안서에 당단체가 설치되었다. 대표적으로 함북 성진보안서의 사례를 보면, 쌍포분서 분대장 신영일은 1946년 5월 9일 “조선공산당 성진군당 쌍포보안서세포에서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다. 당증번호는 537193번이었고, 상급당부는 함북 성진군당부였다.²¹⁾ 신영일의 사례를 보면 각 지역에 설치된 도 보안

18)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306~308쪽.

19)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472~479쪽.

20)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서울: 兵學社, 1977), 28쪽.

21)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리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1949), NARA,

부, 시·군 보안서, 보안분서에 당세포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보안서에는 당세포가 조직되었고, 당위원회는 조직되지 않았다.

둘째, 해방 직후에 설립된 군사학교에도 당단체가 설치되었다. 1946년 10월 8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에 당단체를 설립하고, 이 당단체를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에 직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의 당단체는 당규약상의 시·군당위원회와 동급 당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²²⁾ 이 결정은 북조선로동당 중앙이 군사학교를 직접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시·군당위원회와 동급 당위원회로 인정한 것은 군사학교 당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당의 지휘와 간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제7차 회의 결정으로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는 당단체가 결성되었다. 정권기관의 당단체는 정권기관의 상급당부에 소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보안간부학교는 당중앙본부에 직속되었다. 이것은 북조선로동당이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를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양학원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 이전부터 당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1946년 6월 중순 당시 “북조선공산당 평양학원 당위원장”은 전창철(全昌哲)이 맡고 있었다. 이 당시 평양학원에 “평양학원 제9세포”가 조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원에는 최소 9개 이상의 당세포가 있었다. 학생들은 당간부의 추천을 받아 입당심사를 받은 후 입당했다. 예를 들어 평양학원 제2기생인 정정환은 제9세포 조직간사 리갑령의 추천을 받아 입당을 신청했다. 전창철은 평양학원 당위원장

RG 242, SA 2009, Box 10, Item 22.3.

22) “평양학원 및 보안간부학교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10.8), 『사료집』, 30권, 13쪽.

으로서 입당신청자에 대한 입당자격을 심사하고 직접 입당여부를 결정했다. 그는 정정환이 만 17세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일단 “공산당 후보당원”으로 입당시켰다. 정정환은 당세포에서 1년간 활동한 후 정당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자 바로 정당원으로 승격되었다.²³⁾

전창철의 후임으로 “북조선로동당 평양학원당부 위원장”을 맡은 인물은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출신 조정철(趙正哲)이다.²⁴⁾ 조정철은 원래 평양학원 초대 정치부원장이었다.²⁵⁾ 그는 전창철이 평양학원의 2대 정치부원장에 임명되자 후임으로 평양학원 당위원장직을 맡았다. 이처럼 평양학원의 당사업을 총괄 지도하는 정치부원장과 당사업을 집행하는 당위원장은 북조선공산당부터 북조선로동당까지 계속해서 항일연군 출신이 많아왔다. 김일성은 1947년 10월 5일에 개최된 평양학원 제3기 졸업식에 참석해 학원의 당위원장에게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다.²⁶⁾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에 설립된 당단체의 구체적 모습은 이 학교 졸업생의 「리력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76mm포병연대 중대장이중호는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이다. 그는 1946년 1월 21일 조선공산당 황해도 송림시당부에 입당하였다. 이중호는 1947년 12월 13일 제1중앙군관학교 포병과에 제2기(단축과)로 입학하였다. 입학이후 그

23) 정정환(제17포병연대 1대대장), 『자서전』(1950.2.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4.

24) 雲谷, “平壤學院創立: 週年 紀念記,” 평양학원, 『새三千里』, 2·3월호(평양: 평양학원편집부, 1947), 185~186쪽,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37.

25)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474쪽.

26) 김일성,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1947.10.5), 『김일성전집』, 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99~400쪽.

의 당적은 “북조선로동당 본부직속 군관학교위원회”로 이적되었다.²⁷⁾ 제1중앙군관학교는 중앙보안간부학교의 후신이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작성 시점의 학교 명칭을 기재한 것이다. 평양학원의 당위원장을 계속해서 항일연군 출신이 맡았던 데 비해, 중앙보안간부학교의 당위원장은 이와 달리 조선의용군 출신인 정치부교장 김웅(金雄)이 맡았다.²⁸⁾ 중앙보안간부학교의 2대 정치부교장은 항일연군 출신인 김경석(金京石)이 맡았다.²⁹⁾

보안무력에 설치된 당단체의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다. 두 학교에 조직된 당단체의 이름은 ‘학원당위원회, 학원당부, 학교위원회’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노동당의 일반적인 조직형태에 따른 명칭은 ‘당위원회’이다.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당단체의 기본조직인 세포는 중대에 설치되었다. 각 소대에는 분조(分組)가 설치되었다.³⁰⁾ 북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위원회는 당원 20명 이상인 당세포에서 조직할 수 있다. 당의 기본조직인 세포는 당원 5명부터 조직할 수 있고, 분조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세포 아래 당원 3명 이상부터 조직할 수 있다.³¹⁾ 즉 군사

27) 리중호, 『조선인민군대 리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1949),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1.

28) 유성철, 『증언 : 김일성을 말한다』(서울: 한국일보사, 1991), 65-66쪽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엮음,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서울: 중앙일보사, 1993), 72쪽;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0쪽.

29)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1쪽.

30) “평양학원 및 보안간부학교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10.8), 『사료집』, 30권, 13쪽.

31)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48),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27.

학교에는 중앙당 → 당위원회 → 당세포 → 당분조로 이어지는 중앙당 계통의 지도체계가 건설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산하에는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외에도 수상간부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보안국시절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에 당단체가 설립되지 않았다. 수상보안간부학교의 당단체는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시절에 설립되었다. 당중앙 조직부는 1947년 11월 27일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수상보안간부학교에 “당단체의 지도기관으로서 당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수상보안간부학교 당위원회를 강원도당부에 직속시키고 군(郡)당부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 중대에 세포를 조직하고 소대에 분조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³²⁾

수상보안간부학교의 당단체는 내무국시기에 처음 조직되었고 학교가 위치해 있는 강원도당에 직속되었다. 평양학원·중앙보안간부학교 당단체의 상급기관이 중앙당인 데 비해, 수상보안간부학교 당단체의 상급기관은 강원도당이었다. 당단체의 조직시기와 상급기관이 다른 이유는 앞의 두 학교가 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였던 데 비해, 수상보안간부학교는 수상보안대 대원을 양성하는 경찰학교였기 때문이다. 북조선로동당은 경찰학교보다 군사학교에 대한 당적 지도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셋째,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이 관할하는 내무국군대에도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먼저 철도보안대에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철도보안대

32)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수상보안간부학교내 당조직에 대하여”(1947.11.27),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自 一九四六.九, 이하 당조직부 지시문철)』(평양: 북조선로동당, 1950),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1205 (이하 생략).

의 당단체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시기에 확인된다. 황해도당 조직부는 1947년 8월 당중앙에 “황해도당부 조직부에서의 철도보안대 및 검찰소내 당조직에 대하여”라는 문제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당중앙 조직부는 “이 문제는 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조직부에서 이 기관들의 실시사업관계를 검열하는 중임. 따라 급속한 시일내에 적당한 결론을 어든후에 구체적으로 지시할 예정임으로 당분간 현재대로 두시오”라고 지시하였다.³³⁾ 이 지시문을 보면, 철도보안대에 당단체를 조직하는 문제는 이미 8월 이전부터 제기되어 당중앙 조직부에서 철도보안대의 실제 사업내용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철도보안대 당단체의 조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고 당분간은 그대로 두라고 회신하였다.

당중앙 조직부는 1947년 9월 초에 철도보안대를 비롯해 철도 관련 기관의 당단체 조직문제를 결정하였다. 당중앙 조직부장 허가이(許哥而)는 각 도당위원장에게 “철도보안대, 철도검찰소, 철도재판소, 육운 사업소에 있는 당세포는 철도당부에 속한 다른 세포와 동일한 조건 밑에 철도당부에 속하게 함, 각 도당부에서는 9월 15일 전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것, 철도보안대에 세포는 소대 단위로 조직하고 조직문제는 해당 시·(구역)군당부에서 보기로 한다”라고 하달하였다.³⁴⁾

중앙당 조직부는 철도보안대의 상급지도기관을 철도당부로 규정하였고, 다른 철도 관련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철도보안대는 군사 학교·경찰학교와 달리 독립적인 당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

33)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황해도당부 조직부에서의 철도보안대 및 검찰소내 당조직에 대하여란 문제에 대하여”(1947.8), 『당조직부 지시문첩』.

34)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No.259(제목없음)”(1947.9), 『당조직부 지시문첩』.

철도보안대와 함께 38선경비보안대에도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38선 경비보안대의 당단체도 내무국시기에 조직되었다. 당중앙 조직부는 1947년 11월 29일 황해도당과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三八 경계선 보안대 및 기마대 당조직에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하달했다. 당중앙 조직부는 이 지시문에서 “경계선 보안대대와 기마중대들에는 당단체를 개별적으로 조직하고 도당부에 직속시킬 것”을 지시하였다.³⁵⁾ 38선경비보안대 당단체의 상급기관은 주둔지 도당부였고, 부대에는 독립적인 당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

추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방 직후에 창설된 각종 경비대는 창설 당시부터 부대 안에 당단체를 설치하고 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활동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에 따르면, 모든 내무국군대에는 부대 창설 당시부터 당단체가 결성되었다. 김일성은 1948년 10월 21일 경비대 문화일꾼회의에서 경비대는 “창건되는 첫날부터 부대안에 당조직을 두고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하여왔”다고 발언했다. 그가 언급한 경비대는 “38선분계선과 해안, 국경, 철도 그리고 국가의 중요기관과 공장, 기업소, 산업시설”에 설치된 부대였다.³⁶⁾

따라서 당단체가 조직된 부대는 38선경비보안대, 수상경비대, 조만 국경경비대, 철도보안대, 중요산업시설 경비대다. 당단체가 조직된 부대에는 소대단위까지 모두 세포가 조직되었고, 당원들은 세포에 소속 되어 당생활을 하였다. 위의 문헌에서 김일성은 독립부대의 당단체가 창설 당시부터 조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철도보안대와 38선경비

35)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三八 경계선 보안대 및 기마대 당조직에 대하여”(1947.11.29), 『당조직부 지시문철』.

36) 김일성,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1948.10.21), 『김일성전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66~368쪽.

보안대의 당단체는 1947년 9월과 11월에 설립되었다. 그가 언급한 창설시점은 내무국군대가 여러 차례 개편과정을 거쳐 부대편제를 완료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국·내무국에 조직된 당단체의 상급기관을 보면,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중앙당, 수상보안간부학교와 38선경비보안대는 주둔지역의 도당, 철도보안대는 철도당부였다. 북조선로동당은 이 중에서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확고히 장악하기 위해 학교의 당단체를 중앙당에 직속시켰고, 시·군당위원회와 동급 당부로 인정하였다. 군사학교의 당단체와 달리 경찰학교와 독립경비부대의 당단체는 모두 1947년 내무국시기에 조직되었고, 독립적인 당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 이는 노동당이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경찰과 경비부대보다 군사학교를 장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1월 5일 내무국군대의 당조직 계통을 통일했다. 이날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제52차 회의를 통해 내무국 경비처에 소속된 각종 보안대의 당단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당조직 계통을 변경하였다. 먼저, 경비처의 각 보안대 내 당조직은 시(구역)·군당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당조직으로서 당중앙에 직속시켰다. 중앙상무위는 계통변경과 함께 내무국군대의 당단체에서 3월에 새로 당대표를 선출하라고 지시했다.³⁷⁾ 내무국군대의 당단체는 이 결정을 통해 모두 중앙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이 1948년 1월 시점에 내무국군대의 당단체를 중앙당 직속으로 개편한 것은 조선인민군 창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인민군은 2월 8일에 창설될 예정이었다. 집단군총사령부가 지휘

37) “내무국 경비처 각종 보안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8.1.5), 『사료집』, 30권, 335-336쪽.

하는 2개 보병사단과 1개 보병여단은 인민군 창설 이전까지 내무국군대와 함께 주둔지역의 경비임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군이 정식으로 창설되면 이 같은 경비임무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내무국군대 중 수상보안대대는 향후 인민군 해군으로 개편될 예정이었다.

결국 인민군이 창설될 경우 내무국군대의 경비임무는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38선 충돌은 1948년 2월에 인민군이 창설된 이후 4월부터 급격히 증가했다.³⁸⁾ 이에 따라 38경비여단의 임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내무국군대의 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무국군대의 당단체를 중앙당에 직속시켜 당적 통제를 강화하려 구상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단체의 관할계통이 격상될수록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며, 당군관계가 밀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방 직후부터 당군관계는 당단체의 조직 여부와 관할계통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상의 당군관계를 정리하면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수상보안간부학교, 철도보안대, 수상경비대, 38선경비보안대, 조만국경경비대, 중요산업시설 경비대, 각 지역의 도 보안부, 시·군보안서, 보안분서에는 당단체가 결성되었다.

3. 군사지휘기관과 군대의 당군관계

군대의 당단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보안국 시기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군사학교와 경비부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북조선로동

38)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서울: 돌베개, 2006), 203~204쪽.

당은 군사학교와 경비부대에 당단체를 설치함으로써 군사간부의 양성과 주요경계·시설의 경비에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계획하였다. 즉 북한의 당군관계는 군사지휘기관이 창설되기 이전에 정권기관의 보안무력에서 출현하였다. 북한의 보안무력은 1946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창설되면서 군대와 경찰로 분리되었는데,³⁹⁾ 대대부는 3개 지역(개천·나남·원산)의 보안간부훈련소와 군사학교인 평양학원·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직접 지휘하였다.⁴⁰⁾

북조선로동당은 대대부를 창설하면서 국가건설의 전체적 구상 속에서 무력 창설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1946년 8월 시점에 독립국가의 무력인 정규군 창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규군 보병부대의 모체인 보안간부훈련소를 보안기구에서 독립시켰다. 그리고 정권기관인 보안국과 내무국에 38경비보안대, 조·만국경경비대, 수상보안대대를 배속해 38선·국경지대·해상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치안업무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경비임무를 전담시켰다. 이와 동시에 군사지휘기관의 모체로 대대부를 설립해 각 병종부대를 육성하였다.⁴¹⁾ 보안간부훈련소와 군사학교는 8월 15일부터 창군과정에 투입되어 정규군 육성 임무에 주력하였다.

북한의 당군관계는 1946년 8월에 북한지역에 처음으로 당·정권기관·군대의 기본적 형태가 출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8월 15일에는 최초의 군사지휘기관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창설되었고, 8월 28일에는 남한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당인 북조선로동당이

39)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28쪽.

40) 위의 책, 28쪽.

41)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호(2017), 306-307쪽.

창당되었다. 북한지역의 정권기관은 이미 6개월 앞선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다.⁴²⁾ 당군관계의 기본적 형태는 대대부가 설립된 이후에 군대의 당단체 설치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라 등장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이 군대의 당단체에 관한 문제를 처음 결정한 시기는 1946년 10월이다. 중앙상무위원회는 10월 21일 제9차 회의를 통해 보안무력 내에 당조직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였다. 당중앙은 “북조선에 건립되어 있는 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는 북조선 인민의 민주개혁을 보장하는 전 인민의 군대인 바 이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하고 군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오 내에 각 정당 조직을 두지 않을 것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다.⁴³⁾ 이 결정서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군대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당조직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다. 노동당은 군대를 ‘북조선 인민의 민주개혁을 보장하는 전 인민의 군대’로 규정하였다. 당조직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하고 군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정서에 등장한 ‘인민의 군대’라는 개념을 해방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주체는 김일성이다. 그는 1946년 5월에 『민주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1934년에 만주에서 조직된 “인민혁명군(人民革命軍)”을 “인민의 가운데서 난 인민의 군대”이며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라고 설명하였다.⁴⁴⁾ 노동당은 김일성이 제기한 ‘인민의 군대’ 개념과 동일하게 군대를 당의 군대가 아닌 인민의 군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42)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사료집』, 7권, 594쪽, 642쪽.

43)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10.21), 『사료집』, 30권, 37쪽.

44) 韓載德, “金日成將軍遊擊隊戰史(抄),” 『金日成將軍凱旋記』(평양: 民主朝鮮出版社, 1947), 33쪽, 36쪽.

인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하고 군사지휘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였다. 제9차 회의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대내 각 정당의 조직을 두지 않을 것을 주장하기로 함.
2. 군대내에 로동당 조직을 두지 않기로 결정함.
3. 군대 내에 있는 당원들의 당증을 회수하고 대신에 당원이라는 증명서를 주기로 함.
4. 군대 내에 있는 당원들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기로 함.
5. 군대 내에서 제대한 당원들에게 증명서에 근거하여 당원증을 바꾸어 주기로 함.
6. 대내에 있는 당원으로서 당규를 및 군대규를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규약에 제정한 책벌을 적용하기로 하며,
 - ㄱ. 대원으로 있는 당원들 책벌은 런대 문화부장이 취급하고 소재 도당 부에서 비준하기로 함.
 - ㄴ. 군관으로 있는 당원들 책벌은 집단군 문화사령이 취급하고 중앙당 부에서 비준하기로 결정함.
7. 증명서를 당증과 교환하여 내주는 사업은 일반 당원들에게 유일당증을 내줄 때에 하고 그 집행은 당중앙조직부와 집단군 정치부사령에게 위임하기로 함.
8. 이 결정서를 군대 내에 있는 당원들에게 해석하는 것은 군대 정치문화 책임자에게 위임하고 집행조직과 검열은 김책 동무에게 위임함.
9. 대내 당원들에게 수여할 증명서 양식을 승인하고 인쇄하는 것은 태성수 동무에게 위임한다.⁴⁵⁾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당조직 설립에 대한 결정이다. 노동당은 군대에 노동당조직을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다른 정당에게 당조직을 설립하지 말자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군대에는 노동당은 물론, 민주당과 청우당의 당조직도 설립되지 않았다. 둘째, 군대내 당원에 대한 결정이다. 당원에게는 당증을 회수하고 당원증명서를 발급하며 당비를 받지 않는다. 대원당원 책별은 연대 문화부장과 주둔지 도당부가 다루고, 군관당원 책별은 집단군 문화사령관과 중앙당부에서 다룬다. 셋째, 결정서 집행자에 대한 결정이다. 당원증명서 발급은 당중앙 조직부와 집단군 문화부사령관에게 맡겼다. 결정서 해석은 군대 정치문화책임자에게 위임했고, 증명서 승인·인쇄는 태성수(太成洙)에게 맡겼다.

김책(金策)은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상무위원이자 군사학교인 평양학원 원장이었고, 태성수는 북조선로동당 상무위원 겸 당기관잡지 『근로자』 주필이었다.⁴⁶⁾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이 결정의 집행조직과 검열을 김책에게 위임하고 있다. 당시 군대의 문화부사령관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김일(金一)이었다.⁴⁷⁾ 이처럼 창군 1단계부터 당군관계와 군대 정치사상사업의 집행과 검열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하였다.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군대의 당원들은 직급에 따라 책별문제를 취급하는 상급당부가 달랐다. 병사·하사관 당원의 책별은 소재지 도당에서 비준하였고, 군관 당원의 책별은 중앙당에서 비준하였다. 결정서에 등장하는 “집단군”은 1947년 5월 17일에 창설된 북조선

45)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10.21), 『사료집』, 30권, 37쪽.

4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79~183쪽.

47)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29쪽.

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 이하 집단군총사령부)를 뜻하며, “집단군 문화사령”은 집단군총사령부 문화부사령관을 뜻한다. 당시 집단군총사령관은 최용건(崔庸健)이었고, 문화부사령관은 김일이였다.⁴⁸⁾

직급에 따른 책별 비준권의 분리는 1947년 5월 집단군총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7년 7월 3일 함남도당부 조직부는 당원책별문제에 대해 당중앙 조직부에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당중앙 조직부는 “보안간부훈련소 내에 있는 당원들의 책별문제에 대하여서는 1946년 10월 21일 제9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5의 6항 (가), (나)에 명기되어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⁴⁹⁾ 제9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5의 6항 (가)항과 (나)항은 바로 대원인 노동당원은 도당부에서 비준하고 군관인 노동당원은 중앙당부에서 비준한다는 결정이었다.⁵⁰⁾ 당시 함경남도 나남에는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가 있었기 때문에 함남도당에서 보안간부훈련소에 근무하는 대원들의 책별문제를 당중앙에 문의한 것이다. 즉 노동당은 군관에 대한 책별 비준권을 중앙당에서 직접 장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노동당은 군대에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지만, 군대에 있는 노동당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당은 노동당원인 군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각 부대별로 문화부(文化部)를 설치하였다. 군대의 정치사상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부는 집단군총사령부 문화부(문화

48)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瑞文堂, 1991), 53~54쪽;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서울: 고려원, 1990), 73쪽.

49)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1947년 7월 3일부 귀당부 조직부 96호 서신으로 문의한데 대하여”(1947.7.11), 『당조직부 지시문철』.

50)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10.21), 『사료집』, 30권, 37쪽.

부사령관) → 사단·여단 문화부(문화부사단장·문화부여단장) → 연대 문화부(문화부연대장) → 대대 문화부(문화부대대장)의 계통으로 이루어졌다.⁵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원인 노동당원은 연대 문화부에서 관리하였고, 군관인 노동당원은 집단군총사령부 문화부에서 관리하였다.

군대에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군사지휘기관의 직속 부대에는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이 부대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집단군총사령부 예하의 중앙경위대(中央警衛隊)다. 1947년 6월 11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제37차 회의를 통해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의 중앙경위대에 당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중앙상무위원회는 “중앙경위대 내의 당단체는 중앙본부에 직속”시키고, 중앙경위대 당위원회를 군당위원회와 동급 당부로 승인했다.⁵²⁾ 노동당이 특별히 중앙경위대에 당단체를 조직한 것은 이 부대가 평양의 중요건물과 요인들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총사령부의 “근위대”였으며,⁵³⁾ “정부기관을 경호하는 친위대”였기 때문이다.⁵⁴⁾

또한 보안간부훈련소에는 당단체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보안간부훈련소 군인의 가족들은 당단체인 당세포에 소속되었다. 당중앙 조직부는 1947년 7월 11일 함남도당에 하달한 지시문에서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들의 부인당원들은 가급적 그들로 한 세포를 구성케 할 것이며,

51) 문화부중대장제도는 1949년 5월에 신설되었다. 『조선인민군 내에 중대 문화부 중대장제의 설치에 관한 결정서』(1949.5.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52) “중앙경위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7.6.11), 『사료집』, 30권, 224쪽.

53) USAFIK, G-2, ISNK, No.45(1947.9.15-9.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422쪽.

54)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30쪽.

당원수가 적을 시에는 적당한 세포에 소속시켜 당생활을 식힐 것”을 지시하였다. 노동당이 군인가족을 당세포에 소속시킨 이유는 비밀리에 군대를 조직한 사실과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중앙 조직부는 함남도당에 “그 당원들(부인당원)에게 군사기밀 보장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⁵⁵⁾ 노동당은 호위부대나 군인가족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군대에 당단체를 조직하였다.

한편 노동당은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군대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부 설치와 함께 또다른 조치를 결정하였다. 당중앙상무위원회는 1946년 10월 21일 제9차 회의에서 군대의 당조직 문제와 함께 노동당원인 간부들의 인사권문제도 결정했다. 중앙상무위원회는 “각급 당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로동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간부들의 공작 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중앙상무위원회는 당단체와 사회단체별로 중앙당 간부와 도당 간부에서 취급해야 할 간부들을 구분했다. 그리고 “군대기관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하급당부에서 취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⁵⁶⁾ 이 결정에 따라 군대간부들의 배치와 이동은 오직 중앙당 간부부에서만 취급하게 되었다.

중앙상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10월 8일 제7차 중앙상무위원회 회의 직전에 보안무력 전체에 대한 당단체 조직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제7차 회의에서 평양학원과 보안간부학교에 당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제8차 회의에서 군대안에 당조직을 결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9

55)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1947년 7월 3일부 귀당부 조직부 967호 서신으로 문익한데 대하여”(1947.7.11), 『당조직부 지시문철』.

56)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1946.10.21), 『사료집』, 30권, 36~37쪽.

차 회의에서 군대간부의 인사권을 중앙당 간부부에 귀속시킴으로써 당조직 미결성에 따라 군대에서 당적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상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이 노동당원인 간부들의 인사권을 장악한 것은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노동당은 이 결정을 통해 군대·당·사회단체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노동당은 정권기관·사회단체 간부의 인사권을 장악해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초보적인 형태의 소련식 ‘노멘클라투라(Nomenclatura)’ 시스템을 구축했다.⁵⁷⁾ 당이 각 기관과 단체의 인사권을 장악할수록 당과 국가는 더욱 일체화된다.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에서 ‘당=국가체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치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 안에 당조(黨組, Fraction)⁵⁸⁾를 설치하는 것이다. 당은 해당 기관 내 핵심간부들로 구성된 당조를 움직여 이 기관을 당의 의사대로 활동하도록 만들었다.⁵⁹⁾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에 정권기관·근로사회단체의 내부에 당지도기관을 전면적으로 설치했다. 즉 노동당은 1947년 2월 7일 제22차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인민위원회, 근로사회단체, 기타 기관, 임시회의체의 대표·위원 중 노동당원이 3명 이상일 경우 당조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기관의 당조는 당중앙본부, 도기관의 당조는 도당부, 시·군 기관의 당조는 시·군당부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⁶⁰⁾ 당중앙은 각 기관과 임시회의체의

57) 레오날드 샤피로, 『蘇聯共產黨史』(서울: 문학예술사, 1986), 529쪽.

58) 당조는 당이 국가 정권기관, 사회단체, 협동단체 등을 지도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대회·협의회·선거기관 안에 그 기관의 당원들로 조직하는 당조직이다.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73쪽;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09쪽.

5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243쪽.

대표·위원이 모두 노동당원인 경우에도 당조를 조직하라고 지시했다.⁶¹⁾ 당조는 해당 기관에 있는 당세포의 활동을 지도하는 현장의 당 지도기관이었다.

그러나 북조선로동당은 군대에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는 당의 지도기관인 당조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당단체가 조직된 보안무력과 내무국군대에도 당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중앙 조직부가 평북도당에 하달한 지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4월 19일 당중앙 조직부장 허가이는 신의주시 당부가 조직한 당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중앙은 신의주시당부가 “보안사업과 시인민위원회사업이 밀접하다는 리유하에 보안서장을 시인민위원회 당조에” 넣은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당중앙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당조를 인민위원회의 대표나 위원으로 조직하라고 지시했다.⁶²⁾ 당중앙 조직부의 지시를 해석해 보면, 시인민위원회 보안서에는 당조가 조직되지 않았고, 보안서장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당조에 포함될 수 없었다.

1946년 8월에 경찰과 군대가 분화된 이후 당군관계를 살펴보면,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았고 당과 국가의 일체화를 대표하는 당조도 조직하지 않았다. 다만 중요기관·중앙요인을 경호하는 중앙경위대와, 군부대의 군인 가족 중 노동당원에 한해 당단체를 조직하였다. 노동당은 당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군인들을 지도·통

60) “당조 조직에 대하여”(1947.2.7), 『사료집』, 30권, 119~120쪽.

61)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당조직에 대하여”(1947.3.12), 『당조직부 지시 문철』.

62)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허가이, “당조조직에 대하여”(1947.4.19), 『당조직부 지시 문철』.

제하기 위해 군대에 별도로 문화부계통을 설치하였다. 결국 노동당원인 군인들은 정권기관·사회단체의 노동당원들에 비해 간접적 방식으로 당생활을 진행하였고, 군대는 정권기관·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으로부터 독립해 성장하였다.

4. 통일전선의 군대와 당·군의 이원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10월에 해방 이후 최초로 당군관계를 결정하였다. 노동당은 군대를 당의 군대로 만들지 않고, 노동당에 의한 유일적 통솔권이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에 의한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노동당이 이처럼 군대를 당의 군대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군관계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각 국가의 당군관계는 특히 권력장악의 과정, 혁명적 발전의 속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⁶³⁾ 북한의 당군관계도 권력장악의 과정이나 혁명의 속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46년 10월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당군관계가 결정될 당시, 이를 결정한 주체는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였다. 당시 중앙상무위원은 모두 13명이었다. 상무위원을 정치세력별로 구분해보면, 항일연군 출신은 김일성·김책이었고, 의용군 출신은 김두봉(金斗奉)·최창익(崔昌益)·김교영(金敎英)·박일우(朴一禹)·김창만(金昌滿)·박효삼(朴孝三)이었다. 고려인은 허가이·태성수였고, 국내공산주의자는 주녕하(朱寧河)·박정애(朴正愛)·오기섭(吳琪燮)이었다.⁶⁴⁾ 당군관계 결정에는 항일

63)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34~35쪽.

연군 출신의 지도자 김일성, 전 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 고려인 중 최고위급 당간부 허가이, 함흥적색노조의 지도자 주녕하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 즉, 제1단계 창군과정에서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하자는 결정은 항일연군·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들이 합의한 결과였다.

그런데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은 모두 해방 이전에 당단체가 설치된 군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동북항일연군에는 사단과 연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설치되었고, 사단당위원회에는 집행부서로 사단 정치부가 설치되었다.⁶⁵⁾ 조선의용군이 조직한 연안군정학교에는 “중국공산당 조선혁명군정학교 당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당서기는 박일우, 위원은 주덕해(朱德海)가 맡았다. 군정학교의 각 구대(區隊)에는 구대장과 함께 정치지도원인 협리원(協理員)이 임명되었다.⁶⁶⁾ 이들은 해방 전에 당의 군대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았다.

북한정치세력이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혁명노선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 서북 5도당책임자 급 열성자대회에서 “금일의 우리 과업은 쏘베트-국가 건설 안이라 인민공화국 건립이 기초임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산계급 뿐 안이라 자본가·지주 할 것없이 전민족이 다-같이 일치 단결하여 통일전선을 느러야 할 것”

64) 金柱炫, “北朝鮮勞動黨의 誕生,” 『근로자』, 창간호(평양: 노동신문사, 1946.10.25), 47~48쪽;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회의록,” 『사료집』, 1권, 176쪽.

65) 김일·오진우·림춘추, 『항일무장투쟁경험』,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73쪽.

66)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서울: 나남, 2001), 299~300쪽.

이라고 주장했다.⁶⁷⁾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당시부터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구했다.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소극적이며 생계형인 친일파까지 등용해 통일전선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민족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전체 민족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⁶⁸⁾ 해방 이후 북한에서 조선공산당의 조직기반은 미약했고, 혁명단계도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조선신민당과 합당해 근로대중정당인 북조선로동당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 당의 군대를 조직하고자 했으나 북한의 정세와 혁명노선으로 인해 당의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다. 이들은 혁명노선에 따라 통일전선의 구축과 소비에트정권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인민정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동력에서 적극적 친일파·민족반역자를 배제하고 소극적 협력자인 인텔리·지주계급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북한에는 각각 빈농·노동자 중심의 북조선로동당, 부농·소시민·인텔리·수공업자·자본가 중심의 조선민주당, 소자산계급·중농·부농·인텔리 중심의 조선신민당이 창당되었다.⁶⁹⁾ 통일전선은 노동자와 농민만으로 구축할 수 없으며, 군대와 보안기구에는 노동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원·청우당원·무소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67) 金日成 將軍 述,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여』(청진: 朝鮮共產黨清津市委員會, 1946.3), 10쪽,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41.

68) 김선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배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호(2017), 227~232쪽.

69) 김선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배제,” 220~221쪽, 232~233쪽.

각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군대에 다른 정당의 당단체가 결성된다면, 군대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북조선로동당은 군대에 노동당의 당단체를 결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당단체를 결성하지 말자고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군대를 노동당의 군대로 육성하는 군대의 당군화(黨軍化)를 추진하지 않고 ‘진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동당은 군대를 간접적 방식으로 장악하기 위해 중앙당계통과 별도로 문화부계통을 설치하였다. 군대는 북한지역의 모든 부문 중에서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유일한 부문이었다. 즉 북한의 군대는 혁명노선에 따라 정권기관·사회단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당의 당적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 성장하였다.

1947년 2월 7일 북조선로동당은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지방인민위원회 등 모든 정권기관과 사회단체에 당조를 설치해 노동당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노동당은 군대와 내무국군대에는 당의 지도기관인 당조를 조직하지 않았다. 당조는 국가 정권기관, 사회단체, 협동단체의 모든 대회·협의회·선거기관에 일률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 내 성원들의 구체적인 구성형편에 따라 조직했다.⁷⁰⁾ 따라서 노동당이 군대와 내무국군대에 당조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군대 안의 정당원 분포와 관련되어 있다. 즉 군대가 제1단계 창설과정부터 노동당의 군대가 아니라 “통일전선의 군대”로 규정되었기 때문이었다.⁷¹⁾

70)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09쪽.

71) “통일전선의 군대”라는 용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조선로동당은 1989년에 발간한 서적에서 국가건설기 당군관계에 대해 “한때 우리 당과

북한정치세력이 해방 직후 군대의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당시 북한의 정치상황 하에서 군대 내에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로동당이 1989년에 발행한 서적에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조선로동당은 이 책에서 김일성이 해방 이후 “인민군대안에 오직 조선로동당의 정치조직만을 내오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만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옹기 실현하자면 군대안에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그에 따르는 정치기관만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인민군대안에 다른 정당의 조직들을 다 내오게 되면 군대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고 군대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⁷²⁾ 조선로동당은 1989년의 시점에 해방 이후 군대 안에 당단체를 결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반대로 이 같은 서술은 노동당이 결론내린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 한다는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즉, 1946년 10월 시점에 군대는 북조선로동당의 영도만을 받을 수도 없었고, 군대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조선로동당은 자신들의 당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당조직도 설치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군화”는 군대를 북조선로동당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뜻했다. 군대안에 노동당의 당조직이 결성되지

인민군대안에 기어들었던 반당혁명종파분자들은 인민군대를 조선로동당의 군대가 아니라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떠벌이면서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음모로 양모로 방해하였다”고 서술했다. 이 같은 서술은 오히려 전쟁 이전에 당과 군대에서 실제로 인민군을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불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증한다. 『해방후 혁명과 건설경험』,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54쪽.

72) 『해방후 혁명과 건설경험』, 2, 55쪽.

않았으므로 “군대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행동의 통일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1946년 10월 당시 군대는 인적 구성과 사상의지적 행동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 인민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을 추구하고, 그 방법으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당과 군대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다양한 계급·계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군대에 당조와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 북한정치세력은 이 같은 정치현실에 따라 군대를 노동당의 군대로 만드는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다양한 정치세력·계급·계층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인민군은 제1단계 창설과정부터 노동당의 군대가 아니라 통일전선의 군대로 조직되었다.

북한의 당과 군대는 1946년 8월 시점에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동당 수뇌부는 8월 창당 당시 전 신민당 당수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고,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김일성과 북조선분국 조직부장 주녕하를 부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었다. 최고결정기구인 당정치위원회는 항일연군 출신 1명(김일성), 의용군·독립동맹 출신 2명(김두봉·최창익), 고려인 1명(허가이), 국내공산주의자 1명(주녕하)으로 구성되었다. 당상무위원회는 의용군·독립동맹 출신 6명, 국내공산주의자 3명, 항일연군 출신과 고려인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⁷³⁾

노동당의 위원장은 김두봉이었지만,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김일성이었다. 창립대회에 참가한 당대표들은 당창립보고 종료후 “로동당의 주위에, 김일성 동지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뭉치”자고 맹세했다.⁷⁴⁾

73) “북조선로동당 규약,”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 47~48쪽.

74) 金柱炫, “北朝鮮勞動黨의 誕生,” 44쪽.

그러나 창당 당시 북조선로동당의 세력구성을 보면, 의용군 출신이 가장 많았고 항일연군 출신이 가장 적었다. 군사지휘기관인 대대부에서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대대부의 인사권은 의용군 출신이 장악하였고, 대대부의 간부는 고려인이 6명, 항일연군 출신이 4명, 의용군·독립동맹 출신이 3명, 국내공산주의자가 2명이었다. 더구나 대대부 사령관 최용건은 노동당원이 아니라 조선민주당 당수였다. 1946년 8월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도체제를 장악하지 못한 채, 각 정치세력이 당·정 권기관·군대에서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해 있는 정치연합체제였다. 즉 1946년 8월 시점에 김일성은 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당과 군대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보안무력에서 다른 정치세력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46년 7월 3일에 개최된 각 도 보안부장 회의에서 보안국 부국장은 보안원들이 “김일성 장군의 사상 밑에 굳게 통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안국장 최용건은 보안사업 평가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자 위원장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을 체득하고 20개 정당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면서 보안원의 지도사상을 ‘김일성 장군의 영도사상’이라고 공표하였다. 보안국장들은 “김일성장군께 드리는 감사문”에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시며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하였다.⁷⁵⁾

북한의 행정기관 중에서 지도사상을 김일성의 영도사상이라고 천명한 기관은 보안국이 유일했다. 또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자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한 것도 선도적이었다. 김일성을 영도자로 처음

75)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사료집』, 9권, 226쪽, 230쪽, 264~265쪽.

형상화한 작업은 1946년 7월에 창작된 ‘김일성 장군의 노래’였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과 대대부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보안무력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의 영도사상으로 규정하였고,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동북항일연군에 부여하였다.⁷⁶⁾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보안무력에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천명하면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지휘관과 정치사상사업 책임자의 구성 때문이다. 보안무력을 총괄하는 보안국장과 대대부 사령관은 최용건이었고, 군대의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지는 대대부 문화부사령관은 김일이었다. 군사학교인 평양학원의 정치부원장과 당위원장은 제1대·제2대까지 전창철과 조정철이 교대로 맡았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제1대 정치부원장은 김웅이었고, 제2대 정치부원장은 김경석이었다. 이들 중에서 김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동북항일연군 출신이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해방 직후부터 보안무력·군대를 총괄하는 최고지휘관과 군대·군사학교의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지는 문화부사령관·정치부원장·당위원장을 거의 독점하였다. 반면에 이들은 노동당과 정권기관에서는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해방 이후 국가건설의 초기부터 노동당이 아니라 바로 군대에서 당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갔다.

76)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304~305쪽.

5. 맺음말

북한의 당군관계는 해방 직후부터 출현하였다. 당군관계가 처음 등장한 기관은 행정기관인 보안국이 관할한 보안무력이었다.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는 1946년 10월에 당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수상보안간부학교에는 1947년 11월에 처음 당세포가 조직되었다. 또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이 관할하는 내무국군대에도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노동당은 경비부대와 달리 군사학교의 당단체를 중앙당에 직속시킴으로써 군사학교를 장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방 직후부터 당군관계는 당단체의 조직 여부와 관할계통에 따라 결정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8월에 경찰과 군대가 분화된 이후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았고 당과 국가의 일체화를 대표하는 당조도 조직하지 않았다. 다만 중요기관과 중앙요인을 경호하는 중앙경위대 등에 한해 당단체를 조직하였다. 노동당은 당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군인들을 지도·통제하기 위해 군대에 별도로 문화부를 설치하였다. 노동당원인 군인들은 정권기관·사회단체의 노동당원들에 비해 간접적 방식으로 당생활을 진행하였고, 군대는 정권기관·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으로부터 독립해 성장하였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당과 군대가 다양한 정치세력·계급·계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군대에 당조와 당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 북조선로동당은 이 같은 혁명노선에 따라 군대를 노동당의 군대로 만드는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계급·계층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인민군은 제1단계 창설과정부터 통일전선의 군대로 조직되었고, 당과 군대는 이원화

되었다.

북한의 당과 군대는 1946년 8월 시점에 특정 정치세력이 지도체제를 장악하지 못한 채, 각 정치세력이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해 있는 정치연합체제였다. 군대의 지휘부는 여러 정치세력과 정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당과 정권기관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반면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노동당이 아니라 바로 군대에서 당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무력은 1947년부터 2개 정치세력이 분점하기 시작했다. 항일연군 출신 최용건은 보안국장을 그만두고 대대부와 집단군총사령부 사령관을 맡아 군대를 총괄하였다. 의용군 출신 박일우는 제2대 보안국장과 초대 내무국장을 맡아 내무국군대를 총괄하였다.⁷⁷⁾ 박일우는 내무국 보안여단, 수상보안대, 철도보안대, 38경비보안대, 수상보안대, 제79기마대대, 수상보안간부학교를 지휘하였다.⁷⁸⁾ 더구나 당과 국가의 일체화를 대표하는 인사권은 노동당과 군대에서 모두 의용군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은 이 같은 정치연합체제에 따라 당과 군대를 이원화시켰다.

이 글은 1945~1947년에 북한에서 당군관계가 출현하는 과정과 군대의 정치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국가건설기에 형성된 당군관계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1947년 5월 17일에 설립된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구성과 노동당 지휘부의 변화를 분석

77)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장 박일우,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2.1), 『사료집』, 9권, 61쪽.

78)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 박일우, “제복 및 견장 등급규정에 관한 지시”(1947.10.9), 『사료집』, 9권, 90쪽.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당군관계는 1948년 2월 8일에 인민군이 정식으로 창설되면서 그 원형이 등장했고, 1948년 9월 9일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원형이 완성되었다. 이상의 주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접수: 6월 20일 / 수정: 7월 30일 / 채택: 8월 7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1964).

『해방후 혁명과 건설경험』,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김일·오진우·립춘추, 『항일무장투쟁경험』,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김일성전집』, 6·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1994).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韓載德, 『金日成將軍凱旋記』(평양: 民主朝鮮出版社, 1947).

2) 기타 자료

『근로자』, 창간호(평양: 노동신문사, 1946.10.25).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48),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27.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自一九四六·九)』(평양: 북조선로동당, 1950),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1205.

『조선인민군 내에 중대 문화부중대장제의 설치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 제60호)』(1949.5.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金日成 將軍 述,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여』(청진: 朝鮮共產黨清津市委員會, 1946.3),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41.

리중호, 『조선인민군대 리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1949),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1.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리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1949),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2.3.

정정환(제17포병련대 1대대장), 『자서전』(1950.2.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4.

평양학원, 『새三千里』, 2·3월호(평양: 평양학원편집부, 1947), NARA, RG 242,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北韓關係史料集』, 1·7·9·30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1989·1990·1998).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샤피로, 레오날드(Leonard Schapiro), 『蘇聯共產黨史』(서울: 문학예술사, 198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서울: 나남, 2001).

유성철, 『증인: 김일성을 말한다』(서울: 한국일보사, 1991).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瑞文堂, 1991).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서울: 돌베개, 2006).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서울: 兵學社, 1977).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서울: 고려원, 199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엮음,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서울: 중앙일보사, 199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 논문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2017).

김선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배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호(2017).

_____,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호(2017).

- _____, “해방직후 북한 보인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86호(2012).
- 백학순, “당·정·군 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위임,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창군기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3호(1998).
- _____,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에서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26호(1996).
-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권 3호(2012).
-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서울: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최대석·윤성식, “북한의 선군정치와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북한연구학회보』, 9권 1호(2005).
-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연구학회 위임, 『북한의 군사』(서울: 경인문화사, 2006).

The Emergence of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and the Army of United Front, 1945~1947

Kim, Seon-ho(Incheon Catholic University)

North Korea's party-military relations appear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 organization where the party-military relationship first appeared was a security forc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curity Bureau. Party cells were organized in the security department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The cells of the military schools were installed in October 1946, and the cells of the soldiers' troops were installed in 1947.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NKWP) carried out the influence of the party by directing the party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chool to the central party.

The NKWP decided in August 1946 not to establish a party organization in the army. The NKWP has set up a separate department to guide soldiers who are not part of the party organization. In the end, the army grew independent of the party compared to the regime

and social organizations. The communists of North Korea did not create an army of the party because it pursued a bourgeois democratic revolution shortly after liberation. As a result, the Korean People's Army(KPA) was organized as an army of unified front from the first phase of the creation process, and the party and the army became dualized.

NKWP and army was a coalition system in which each political party united under a common goal. From the early day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NAJUA) group had secured an advantage over the military, not the NKWP. However, Kim Il-Sung was unable to take over the party and the army. In addition, since 1947, the North Korean revolutionary armed forces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NAJUA group and the Korean Volunteer Army group. Therefor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KPA, the unification of the party and the army and the exclusive domination of Kim Il-Sung were not realized

Keywords: Korean People's Army, Security officer camp, Pyongyang academy, North Korea's central security officer school, Security officer training headquarters, Headquart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orth Korean Workers' Party